

상암 하늘공원에 대관람차 ‘서울링’ 서북권 랜드마크 세운다

63빌딩보다 높은 180m규모 조성
매립지 퇴적층 체험 전시관 갖춰
월드컵공원과 연계 접근성 강화

마블 히어로 ‘닥터 스트레인지’가 시 공간을 넘나들 때 생성하는 ‘포탈’처럼 생긴 대관람차가 쓰레기매립장을 복원해 만든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생긴다. 서울 동남권 어디에서나 잘 보여 길잡이별 북극성 역할을 하는 잠실롯데월드타워 같이 서북권에도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인 거대 대관람차 ‘서울링’이 들어서는 것.

서울시는 8일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마포 하늘공원에 서울형 대관람차인 ‘서울링’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20세기엔 시카고가 세계 최초의 대관람차 ‘페리스휠’을, 21세기엔 두바이가 세계 최대의 대관람차 ‘아인두바이’를 선보였다”면서 “2027년에는 서울시가 세계 최대 고리형 대관람차 ‘서울링’을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링 예상도.

/서울시

시는 전통적인 디자인에서 탈피하기 위해 중심축과 바퀴살을 없앤 반지 형식의 대관람차를 고안해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차원 이동시 만들어내는 ‘포탈’ 혹은 영국의 가전제품 제조사 다이스의 ‘날개 없는 선풍기’와 비슷한 형태다.

서울링은 96m 높이 하늘공원 위에 180m 규모로 지어진다. 지면에서의 높

이는 276m로, 264m인 63빌딩보다 12m 높다. 이 한강 조망 시설은 정원 25명인 캡슐 36개로 구성된다. 하루 약 1만 2000명씩 300일간 운영을 가정하면 연간 350만명이 이용 가능한 수준이다. 캡슐을 통유리로 마감해 시각적 개방감을 극대화, 사계절 변화하는 서울과 한강의 특별한 매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또 시는 대관람차 하부 공간에 1978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반입된 쓰레기 매립지라는 난지도의 역사와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매립지 퇴적층을 확인할 수 있는 체험 전시관(엘리베이터 형태)을 조성하고, 인근 월드컵공원과 연계되는 지하 연결통로를 만들어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링 일대의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는 새로운 이동수단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교통의 결절점이자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 월드컵경기장과 서울링을 곤돌라로 연결하는 것을 포함, 평화의 공원 등 주변과의 보행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상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지하 연결통로에는 무빙워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시는 서울링을 탄소배출제로 시설로 건립해 운영키로 했다. 신규 자원회수 시설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와 서울링에 부착된 태양광 집열판을 통해 자체 생산되는 전기에너지 등을 활용해 대관람차를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링 조성 사업비는 약 4000억원으

로 추산됐다. 시는 서울시 재정 여건과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해 서울링 건립을 수익형 민자사업(BTO·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대관람차의 수요 추정치가 얼마나’는 질문에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전 ‘런던아이’나 ‘싱가폴 플라이어’의 사례로 봐서 서울을 찾는 관광객 중 15~20%가 서울링을 이용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금년 상반기 중 민간에서 사업을 제안하면 2024년까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서 검토와 민자적격성 조사 등을 거쳐 2025년 6월 착공해 2027년 12월 완공한다는 목표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제 한강의 진정한 가치를 살릴 대관람차를 조성할 시기”라며 “휴식과 여가 문화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은 한강의 매력을 살린 대관람차를 만들어 수변의 매력을 증대시키고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함이 있는 한강을 선사함으로써 서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견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지자체 주도 대학 지원사업 시범지역 선정

경남, 경북, 대구 등 7곳 발표
2025년 전 지역에 도입 계획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자체 주도 대학지원체계로 전환하는 ‘라이즈(RISE)’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지역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선정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라이즈’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이다. 2023~20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

라이즈 시범지역 공모는 지난달 2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공모 대상인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신청하는 등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시·도의 높은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범지역은 지자체의 시범운영 의지와 대학지원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되, 지역 균형을 고려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전담부서 및 전담기관 등의 다양한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시·도는 2025년 라이즈 도입을 위해 신청서를 바탕으로 추진체계 마련 및 라이즈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우선 시범지역은 흩어져 있는 대학 관련 업무를 재정비해 라이즈 추진과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연내 설치하게 된다. 더불어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선정·평

가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라이즈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 5개년 라이즈계획(2025~2029)은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해 7월경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만약 지역의 라이즈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가 있는 경우, 시범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청하고,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한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시·도와 함께 라이즈 모델을 만들어 가는 한편, 2023년 하반기부터는 시범지역 외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라이즈 도입을 위한 설명회, 연수 등을 실시해 2024년 말까지 17개 시·도의 라이즈 체계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서울시, 난임 지원에 2123억 지원 확대

30~40세 여성 최대 200만원

서울시는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까지 2123억원을 들여 난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하기로 했다.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시술 종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 200만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단,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최근 결혼 연령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 사이에 난자 동결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라며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동결 시술 지원은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을 통한 쌍둥이(다태아) 임신·출산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시는 고령 산모와 아이의 건강 챙기기에 나서기로 했다.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 산모(35세 이상)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난임 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다태아)의 자녀난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순천향대학교

기업 재직자 입학식

순천향대학교는 기업체 재직자로서 주말을 이용해 학사과정에 도전장을 낸 신입생 19명과 편입생 21명 등 총 40명을 대상으로 특별한 ‘2023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순천향대는 지난 4일 창의라이프대학 주관으로 교내 유니토피아관 1층 3D극장에서 학과별 지도교수와 신·편입생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체 재직자로 학사과정을 시작한 신·편입생을 위해 입학식을 진행했다. 이번 입학식에서는 학사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이어졌다.

/신하은 기자 godhe@

성인·어린이 평생학습 용산도서관 운영

청렴문화 캠페인 프로그램 함께 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시교육청 용산도서관은 청나비와 함께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기개발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더불어 소통하는 청렴문화 캠페인도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성인 프로그램은 서예, 미술, 영어회화, 일본어, 통기타, 문학반 등 총 12개 강좌를 운영 중이며, 오는 27일부터는 독서논술지도사 2급 자격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인기 프로그램은 7세~초등2학년 대상 두뇌활동 프로그램과 6~7세의 유아



서울시교육청 용산도서관 내부 모습.

/용산도서관

영어 그림책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꼽았다. 그 외 초등 영어 그림책 스토리텔링 등 5개 강좌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위례선 ‘무가선 트램’ 시험 운행 손잡아

서울시-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서울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국내 최초 무가선 트램(TRAM·노면 전차) 방식으로 도입되는 위례선의 품질 확보와 제도적·기술적 상호 협력을 위해 손잡는다.

서울시는 8일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간 국내 최초 무가선 트램(위례선) 성공 개통을 위한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위례선의 품질 확보 및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제도적·기술적 협력 방안 논의 ▲

철도종합시험운행 계획수립과 시행 ▲차량기술, 형식승인제도 개편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위례선 트램은 작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같은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오는 2025년 9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무가선 트램 사업이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상호 협력을 통해 위례선 건설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위례선 트램의 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